

이스라엘은 인종 학살

당장 멈춰라!

가자지구 봉쇄 해제하라!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서 벌이는 전쟁으로 팔레스타인인들은 최악의 인종 학살과 인도주의적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2023년 10월 이래, 이스라엘은 5만 1000명이 넘는 팔레스타인인을 살해했고, 이 중 다수는 여성과 어린이입니다. 또 가자지구 봉쇄로 팔레스타인인들은 마실 물조차 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미국 트럼프 정부는 이스라엘에 군사적, 경제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팔레스타인인들을 지지했다는 이유로 예멘 등 중동 다른 국가를 수차례 폭격했고, 폭격 수위도 높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 세계 팔레스타인 연대 운동은 물러서지

않고 있습니다. 얼마 전 모로코 항만 노동자들은 이스라엘로 실려 간다고 알려진 전투기 부품의 선박 작업을 거부했습니다. 방글라데시에서는 100만 명이 모이는 대규모 팔레스타인 연대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무엇보다 미국에서 열린 대규모 반트럼프 시위에서 팔레스타인 연대 목소리는 중요한 일부였습니다. 이들은 트럼프 정부가 미국 내 팔레스타인 연대 활동가들을 체포하고 추방하려는 것을 규탄하며 활동가 석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나크바(대재앙)’

한국에서도 팔레스타인 연대 운동이 꾸준히 이어



팔레스타인인들과
연대하는 사람들

지고 있습니다. ‘팔레스타인인들과 연대하는 사람들’은 지난 1년 반이 넘도록 매주 서울 도심 집회를 개최하고, 여러 도시와 대학, 거리에서 팔레스타인 연대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5월 15일은 1948년 시온주의 정착자들이 팔레스타인을 점령하고 이스라엘을 건국하면서 원주민인 팔레스타인인들을 인종청소 한 사건인 ‘나크바(대재앙)’가 벌어진 날입니다.

이 사건을 기억하고, 팔레스타인의 자유를 위한 연대를 이어가고자 5월 11일(일) 팔레스타인 연대 ‘집중 행동의 날’을 개최합니다.

재한 팔레스타인인들의 호소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팔레스타인인들은 우리들의 땅에 뿌리를 내리고 있고, 결코 뿌리 뽑히지 않을 것입니다.”(나심 알바크리 씨)

“아이들의 죽음이 그저 숫자가 되어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잊혀지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 저희의 고통을 잊지 마시고 인종 학살이 끝날 때까지 연대를 지속해 주십시오.” (나리만 루미 씨)

학살 중단과 팔레스타인의 해방을 위해 평범한 사람들의 목소리와 항의가 중요합니다. 팔레스타인 연대 운동에 함께합시다!



**이스라엘은 인종 학살 멈춰라!
팔레스타인인들과 연대를!**

나크바 77년 집중 행동의 날

🕒 **5월 11일(일) 오후 2시**
📍 **서울, 광화문 교보문고 앞**

5월 15일 '나크바(대재앙)의 날'은 1948년 시온주의자들이 이스라엘을 건국하면서 팔레스타인인들을 인종청소하고, 땅을 강탈한 일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주최
팔레스타인인들과 연대하는 사람들

• 재한 팔레스타인인들이 참가하고 사회자와 연설자로 나섭니다.
• 영어, 아랍어, 벵골어, 인도네시아어, 한국어 통·번역 제공
• 집회 후 미국 대사관, 이스라엘 대사관 앞 등 도심 행진



‘팔레스타인인들과 연대하는 사람들’은 2023년 10월 7일 하마스 공격 직후 10월 11일 한국에서 첫 팔레스타인 연대 집회를 열어 결성된 연대체입니다. ‘팔연사’는 재한 팔레스타인인, 이주민, 대학생, 국내 시민·사회노동 단체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10월 7일 하마스 공격을 이유로 77년간 계속돼 온 팔레스타인 점령과 인종 학살을 정당화했습니다. 하지만 수많은 사람들은 세계 곳곳에서 이스라엘의 만행에 항의하고 팔레스타인인들의 저항을 지지해 국제적 연대 시위와 행동을 벌였습니다. ‘팔연사’는 글로벌 팔레스타인 연대 운동의 일부로서 한국에서 팔레스타인인들의 저항을 지지하며 연대를 건설해 왔습니다. ‘팔연사’는 현재까지 매주 주말 서울 도심 집회를 82차례 열어 왔습니다(2025년 5월 10일 현재) ‘팔연사’는 서울뿐 아니라 부산, 인천, 대구, 울산, 수원, 원주 등 지역과 거리, 여러 대학에서 팔레스타인 연대 집회와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또 포럼, 영화 상영회, 강연회 개최 등 다양한 활동을 벌여 왔습니다.

팔레스타인인들과
연대하는 사람들

후원 계좌: 신한은행 110-173-517650 (예금주 최영준)
보내 주신 후원금은 연대 행동 등을 위해 사용됩니다.

매주 주말에 열리는 서울 집회와 여러 지역 집회, 다양한 활동 소식을 볼 수 있습니다.

웹사이트

